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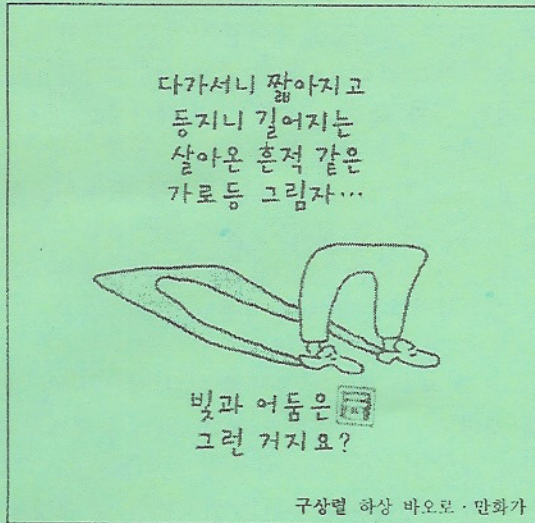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 18주일

제28권 36호(가해) 2008·8·3

[묵상]



구상렬 하상 박오로·만화가

그날 갈릴래아 호숫가에는
수천 명의 군중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시간 가는 줄도, 해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밥걱정에 제자들은 군중을 해산시키자 하는데,
스승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신다.
궁여지책 끝에 마련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조족지혈! 이 어디 누구 입에 붙일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의 손에서
모두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혼자 간직하면 별 것 아니지만
내어놓고 나누면 기적을 일으킨다.
슬픔도 아픔도, 걱정도 기쁨도...
숨겨두면 어둠이요, 내어놓으면 빛이 되듯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이다.(人)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제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중 강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떼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최효선 안젤라.
	(생)민석준 토마스, 민영준 마르코, 최길숙 요세피나, 이명순 크리스티나, 정정현 베네딕다, 정병옥 올리아, 천남숙 리디아, 오창애 안나, 유명련 마리아, 반나영 체칠리아, 조지 가보라
주 일 낮 미사	(연)정진표, 정운봉 베드로, 김인영 베드로, 모춘기 바오로, 황만근 베드로, 최복덕 마리아,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박석규 베르나르도
	(생)이금순 마리아, 이종민 요셉, 엄은섭 도로테오, 이정훈 안셀모와 회운 도미니카, 이유진 대건안드레아, 이유미, 한기현 도밍고, 케네스한 바오로, 송호창 요셉과 전하현 마리아 가정, 김민중 안드레아, 변제연 대건안드레아, 이광세 라파엘과 옥녀 엘리사벳 이종원 베드로와 아녜스 가정, 불우이웃 돕는 분들, 남가주 여성 제28차 꾸르실료 수감자와 봉사자들, 서해경 세라피나, 장정숙 크리스티나 구마리아네 수녀님, 박상대 신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55,1-3
화답송	◎당신이 그 손을 벌려주시고 우리 원을 채우시나이다. ◎주님은 자애롭고 불쌍히 여기시며, 역정에 더디시고 사랑이 지극하오이다. 주님은 온갖 것을 선으로 대하시고, 일체의 조물들을 어여뵈 여기시나이다.◎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오면, 먹을 것을 제때에 주시나이다. 당신이 그손을 벌려주시면, 목숨있는 모든 것, 원을 채우나이다.◎ ◎하시는 일마다 주는 진실하시고, 이루신 일마다 자애로우시나이다. 당신께 비옵는 누구에게나, 진정으로 비는 누구에게나, 주님은 가까이 계시나이다.◎
제 2독서	로마서(Romans) 8,35,37-39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사람은 빵으로만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복 음	마태오(Matthew) 14,13-21
영성체송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빵을 주셨으니,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내고, 모든 입맛에 맞았도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213	193
봉헌	258	256,255
성체	287	305,291
파견	357	227

16. 입문성사 :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 세례성사의 의미와 효과

교회가 정한 준비 과정을 마치고 천주교에 정식으로 입문 하게 될 때 받는 예식이 '세례성사'이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다시 태어나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된다. 그리고 교회에서 베푸는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스도교의 세례(洗禮)는 본래 물에 잠기었다가 나오는 예식이었지만 점차 물로 이마를 씻는 예식으로 간소화되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상징한다. 세례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고, 새로 태어나려면 먼저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물에 잠기는 예식을 하였던 것이다. 물로 씻는 것은 몸의 더러움을 닦아 내는 것이지만, 그러한 눈에 보이는 예식 행위로써 마음을 정화시킨다는 것을 상징하고 또 내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용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물은 생명을 싹트게 하고 성장시키는 한편 일순간에 생명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따라서 세례성사 예식은 죄악에 물든 과거의 우리 자신은 죽게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리도 하느님의 새 생명을 얻게 한다. 이렇게 하여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우리가 물려받은 '원죄'와, 지금까지 우리가 저지른 죄인 '본죄'를 모두 용서받아 깨끗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된다. 세례성사는 우리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영적 표시인 인호(印號)를 새겨 주기 때문에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세례성사를 받는 우리는 성인들의 모범을 본받고자 특정한 성인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정하고, 대부모를 정하여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 세례성사의 집전자

세례성사는 원칙적인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와 부제이지만, 죽음에 임박한 비상시에는 누구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까지도 줄 수 있다. 이때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은 교회의 지향과 양식을 따라야 한다. 교회의 지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보편적 인류구원의 의지이다. 가능하면 천지창조, 삼위일체, 천주강생, 상선벌악의 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다. 교회가 정한 양식은 세례 받을 사람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세례를 줍니다."는 것이다.

▶ 세례성사를 받기 위한 준비

세례성사는 인간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따라 주어지는 성사이므로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세례성사를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느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셋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리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넷째,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계속 - CBCK 제공)

서로 나누기

내가 이탈리아 파도바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가끔 학장 신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환자에게 피가 부족하니 피를 나누어 줄 학생들을 보내 달라는 것이었다. 한번은 심한 화상으로 피부 이식이 필요하니 피부를 줄 사람을 보내 달라고도 했다. 신학생 5명이 자원을 해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환자와 맞는 사람이 2명이었고 그들은 3주 동안 피부 이식을 위해 입원했다. 이후 그 환자가 살아나서 학교에 찾아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이 살갗은 ○○수사님 것이라고 여기는 ○○수사님 것이라고 하며 웃었다.

우리 수도회는 엘리사벳 나눔의 집과 부산에 평화장터가 있다. 고마운 은인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싸게 팔아서 소년 소녀 가장과 어려운 이웃들의 살림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눔으로 더 풍요로움을, 기쁨과 보람을 찾는다.

돈, 명예, 권세를 쥐려고 날마다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길이다. 욕심만 더해 가며 사는 사람과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얼굴 모습과 이웃 사람들의 평가가 전혀 다르다. 평안과 기쁨, 웃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나눔은 자신을 내어 주는 행동이다. 나의 생각, 말, 웃음, 기쁨, 재능, 시간, 지식, 그리고 물건과 돈, 장기기증, 그 밖의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내 생명의 한 부분을 주는 삶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의 정성과 땀, 시간을 바칠수록 이 세상은 복음화된다.

광우병 논란으로 세상이 뜨겁다. 미친 소가 아니라 아픈 소인데... 풀을 먹어야 할 소가 오직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 먹고 싶지도, 먹어서도 안 되는 나쁜 먹이를 먹어 골에 구멍이 뚫리는 병에 걸리고... 그런 쇠고기를 사람이 다시 먹어야 한다면... 이것은 나눔이 아니

라 삶을 죽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신자인 것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현존이 되어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내어 주고 먹히고 다른 이들에게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이다”(쟁탈).

오늘 복음에서는 보리떡 스무 개로 백 명을 먹인 엘리사(2열왕 4,42-44)보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이 훨씬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마태 14,18-19). 여기에서 ‘자리잡다’는 직역하면 ‘눕다’라는 뜻인데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먹을거리를 먹었다. 양식이 적어 나누면 모자랄 것 같지만 일단 나누어 주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는 이야기에 따라 나눔의 보람을 새겨볼 수 있다.

거래가 없이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퍼 주는 사랑과 나누려는 마음만 있다면 오천 명을 먹일 수 있다. 머리로만 나누는 삶이 아니라 손과 발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여 기쁨과 행복을 찾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먹을 것을 당신들이 주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오늘도 자신의 몸(성체)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당부하신다. 물질이든 정신이든 마음이든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고 나눔을 받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정, 교회, 사회가 되길 바란다.

◆박문식 베네딕토 신부<콘벤뚜알 프란치스코회 관구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정미영 미카엘라	최진수 에우세미오	해설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신덕래 테레사	신종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우경석 사도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1독서자	이태호 바오로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2독서자	박지혜 수산나	서용숙 에스텔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P.V. 3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오늘 주일(3일, 매달 첫째 주일)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자선 2차헌금이 있습니다.

8월

◆ 병자 영성체 : 7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성 시간 : 7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북구역

◆ 성모승천대축일 미사 : 15일(금) 오전 8시30분
오후 7시30분

◆ 고 박석규 베르나르도 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연도

- 오늘 주일(3일) 낮미사 후 점심 마치고 성전
- 박진심 마틸다 자매의 부군 ● 7월28일 선종하셨습니다.
- 장례미사 : 8월5일(화) 오전10시, 장지 : Holy Cross 묘지

◆ 남가주 여성 제28차 꾸르실료 환영 울뜨레아

- 오늘주일(3일) 오후 7시30분, 강당
- 수강자 : 이명순 크리스티나 · 정정현 베네딕다
정병옥 율리아 · 천남숙 리디아 · 최길숙 요세피나
- * 봉사자 : 반나영 체칠리아, 오창애 안나, 유명련 마리아

◆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강보험 Healthy Family 소개 세미나

- 일시 : 8월17일(주일) 오후 1시, 유아실
- 보험 종류 : Blueshield, Healthnet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플랜(자녀는 18세까지 해당) ☎ 283-5879 박홍룡 요셉

◆ 목요 예비자 교리반(성탄반) 모집 안내

을 성탄절 세례를 준비하는 새 신자를 모집합니다.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을 교회로 인도합니다.

- 환영식 : 2008년 8월17일(주일) 11시 미사 중
- 교리일정 : 2008년 8월21일(목)~ 2009년 1월15일까지
- 세례식 : 2008년 12월24일 성탄절야
- 신청방법 : 사무실에 비치된 소정양식 작성 후 접수
☎ (310)227-1230 서병교 라파엘(복음화분과위원장)

◎ 축하합니다. ◎

◆ 혼배성사 : 2008년 8월8일(금) 오후 4시

♡ 피터 플레밍 & 이미에 카타리나 ♡

- 주례 : 박상대 마르코 신부님
- 부모님 : 월든 플레밍 & 도로시 플레밍
이경용 야고보 & 이윤조 클라라

◆ 주일학교 새학기 등록 중입니다.

- 접수날짜 : 9월7일까지 매주일 미사 전후
- 대상 : 유치부(K)~12학년까지
- 등록비(1년분) : 첫째아이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아이부터는 무료(9월8일 이후부터는 \$10씩 추가)
- 자모회비 : 한 가정당 \$40
- ◆ 이번 학기부터는 LA교구 요청에따라 liability문제로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주일학교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바랍니다. ☎(310)780-0369 강아네스 교장

◆ 난치병 개인상담 및 무료 시술

- 기간 : 8월 매주일 오전 8시30분~11시, 1층 회의실
- 담당 : 권진열 피데스 요셉회 총무 ☎(310)800-3592
- 병종 : 파킨슨씨병 등으로 반신마비된 분, 정신질환청소년, 치매치료 및 예방

◆ 남가주 한인 M.E. 제62차 주말 참가자 모집

- 일시 : 9월5일(금)~7일(주일), 요셉마리아 피정센터(P.V.)
- 참가비 : \$300(\$100은 본당 지원)
- 문의 : 백삼위 M.E. 대표부부(신임) 최상만 사비노 & 양숙 안젤라 ☎(310)540-9230

◆ 레지오 마리에 토요반 개설

- 새 프래시디움 명칭 : '자비의 어머니'
- 주회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2층교실
- 가입문의 : 오혜숙 루시아 ☎(310)490-3358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8월3일(주일) : 사회복지분과 (햄&터키샌드위치 \$3)
- 8월10일(주일) : 하버/카슨1,2반 (웰빙야채비빔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순복	강인모	곽효식	구본엽	권순봉	김광자
	김대우	김성현	김우용	김제영	김중문	김찬구
	김태호	노천수	민성원	박동수	박종열	배경락
	송재훈	신경훈	안동훈	엄세종	엄혜은	오수인
	오영섭	우영주	우영희	이민상	이병수	이병찬
	이상규	이 석	이석제	이숙화	이용식	이현주
	조소영	조준제	채양석	최귀환	최석원	하정화
	한소옥	한창주	홍숙자	황인중	황지영	
	합계 : \$5,610					
	미사헌금 : \$2,855.62					
성전헌금	강순복	강인모	곽효식	구본엽	권순봉	김광자
	김대우	김성현	김우용	김중문	김찬구	노천수
	박동수	박종열	신경훈	안동훈	엄세종	엄혜은
	오수인	오영섭	우영주	우영희	이민상	이병수
	이병찬	이상규	이석제	이숙화	이용식	이현주
	조준제	채양석	최귀환	하정화	한창주	홍숙자
	황인중	황지영				
	합계 : \$3,294					

이 주간의 축일 (8월3일~8월9일)

축하합니다.

- 3일 : 니고메로 순교자, 가마리엘 (성서인물), 아비바 증거자, 리디아 부인, 트레아 동정녀
- 4일 : 요한 비안네 사제, 라이네리오 주교 순교자, 이아 순교자, 아가비오 주교
- 5일 : 식스토 2세 교황 순교자, 아벨 주교, 베난시오 주교, 토마스 순교자, 논나 부인, 아프라 동정 순교자
- 6일 : 야고보 증거자, 유스토 순교자, 바스톨 순교자, 스테파노 순교자
- 7일 : 알베르토 증거자, 도미시오 순교자, 도나토 주교, 빅트리치오 주교, 글라우디아 부인
- 8일 : 도미니코 사제, 가에타노 사제 증거자, 치리아코 순교자, 시그라다 수절, 아질베르타 동정녀, 라르고 순교자
- 9일 : 오스왈드 순교자, 로마노 순교자, 세레노 주교, 아모르 순교자

남가주 소식

◆ FIAT가족 미사 & BBQ 파티

- 일시 : 8월10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애나하임 성 토마스 한인성당 ☎(714)772-3995
- 대상 : 북미주 한인 가톨릭 리더양성에 동참해주신 FIAT 패밀리와 모든 신자 여러분.

◆ 꽃동네 제4차 청소년 여름 영성피정

- 일시 : 8월14일(목)~17일(일) 3박4일
- 대상 : 9학년~12학년, 참가비 : \$120
- 지도 : 이유진 신부, 신청문의 : ☎(951)302-3400

◆ 예수회 송봉모 신부 초청 신앙강좌

- 일시 : 8월16일(토) 오후 6시30분~9시
8월17일(일) 오후 7시40분~10시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본당(2625 S. Vermont Av.)
- 주제 : 첫째날-부르심과 응답(평신도로서의 사명)
둘째날-생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창립40주년 기념 신앙강좌

◆ 2008년 제21회 남가주 성령쇄신 대회

- 일시 : 8월23일(토) 오전 8시~오후 10시
24일(주일) 오전 8시~오후 5시30분
- 장소 : LA Technical collage, Grand Theater
400 W. Washington Bl. LA
- 강사 : 전달수 신부(남가주사제협의회회장), 임언기 신부(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이태석 신부(살레시오수도회), 김두진 신부(예수고난회), 반영익 신부(성령쇄신봉사회지도)
- * 참가비 : \$25, ☎(213)435-7570
- * 주관 :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이번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모임의 날	오전 9시,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부장 차장 차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테레사 328-0847	김광자 엘리사벳 988-9925 8/8(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3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타카 782-1025 8/22(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박정애 테레사 618-8499	김주량 요한 782-8549 8/2(토) 오후 7시
	2	이크리스 아가톤 619-7763	김용삼 패트릭 787-0082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찌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엄영숙 마리아 373-5662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박희자 마리아 791-3703 8/12(화) 10:30am 히코리팍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324-0735 8/8(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8/17(주일) 오전 11시, 샌피드로팍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2반 합동 반모임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숙희 유소사 544-4807 8/15(금) 오후 7시30분, 성당
	3	윤은경 마카엘라 265-0856	윤은경 마카엘라 265-0856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8/15일(금) 오후 7시30분, 성당

◎ 바오로 사도, 그는 누구인가? (1) ◎

성 바오로 사도 탄생 2000주년 '바오로 해' (2008년 6월28일~2009년 6월29일)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바오로 해'를 선포하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당부했다. 첫째로 신자들이 성 바오로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하고 따라서 바오로 사도의 서간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교파를 초월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대화하며 일치를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긴 수염, 마른 뺨의 평범한 얼굴, 보통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 손에는 성경과 칼을 들고 있다.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응시하는 두 눈에서 비범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성화에 나오는 바오로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지난 6월28일, 바오로 사도의 탄생 2000주년을 기념하는 '바오로 해'의 막이 열렸다. 바오로 사도가 2000년 만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조명을 받고 있다고 하면 너무 과장된 표현일까?

바오로 사도의 중요성은 그리스도 교회 역사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다. 그리스도교를 특정 민족과 지역에 머물지 않는, 인류 전체의 세계적인 종교로 만든 주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스도교는 초대 교회 때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는 일이 무척 어렵고 혼란스러웠다. 초창기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다. 심지어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유대교를 거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방계 그리스도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충돌하기까지 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였던 것이다. 이런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한 인물이 바로 바오로이다.

바오로 사도야말로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는 과장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분명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예수님 다음으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바오로 사도는 베드로와 두 기둥을 이루는 초대 그리스도교 최고의 지도자였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무려 13권을 바오로가 직접 쓰거나 그의 제자들이 기록했다. 그 13권은 다음과 같다. <로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갈라티아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테살로니카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 <티토에게 보낸 서간>,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모두 13권의 서간에 나타나는 그리스도교의 핵심적인 신학, 그리스도론, 교회론 등이 바오로 사도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그리스도교를 박해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열렬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어, 13년 동안의 전교여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변모했으며 끝내 순교로 삶을 마감한 그의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다고 하겠다.

바오로는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철저한 종교 교육을 받았다(필리 3,5; 갈라 1,14). 열심한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 물론 가르침의 골자는 성경과 율법이다. 유대인의 삶의 중심은 철저한 율법 준수였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참한 역사 속에서도 즐기치게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아오게 한 힘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였다. 이스라엘인들은 그 중에서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느님의 율법을 복종하고 지키는 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고 생활했다. 사울(사울은 바오로가 가졌던 유대식 이름이다)은 율법과 종교적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이었던 율법학자였고 바리사이파였다(필리 3,5; 사도 23,6). 한 마디로 그는 출세가 보장된 전도양양한 유대인 사회의 엘리트 청년이었다.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